자영업자 2금융권 대출 1년새 23% 급증

은행권 여신심사 강화 여파 6월말까지 6조 9천억원

저축銀 신용대출 급증 부실 위험…리스크관리 강화해야

공기업에서 퇴직한 뒤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59)모씨는 최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가게 주변에 유명 고깃집 프랜차이즈가 생기면서 장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들의 결혼자금을 마련하느라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공기업에 다닐 때는 은행권에서 최저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은 은행의 대출 한도가 얼마 되지 않아 제2금융권을 찾는다"며 "어려워질수록 이자 부담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들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저축은행 대출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의 실적이 호전되면서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신용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은 2011년 저축은행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2014년 6월에는 27조6000억원까지 줄었지만, 그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은 39조5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가계대출이 16조6000억원, 기업대출이 22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기업대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은 6조9000억원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1년 전보다 22.8% 급증했다. 자영업자 중에는 경기가 악화할 경우 충격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서민대출의 제2금융권 쏠림현상은 한국은행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비(非)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보다 4조3215억원이 늘었다. 8월 기준 월 증가액이 사상 최고치다. 상호저축은행(3493억), 신용협동조합(7188억), 상호금융(1조9409억) 등 모두 8월 기준 증가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카드, 캐피털사 등 올 2분기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대출(할부 등 판매신용 제외) 규모 역시 5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비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며 "제2금융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경기에 민감한 비주택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증가세가 뚜렷해 부실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23조7000억원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은 61.6%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이자 부담은 물론 가계 부실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구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저신용자 고객이 많은 만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된 경험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증가세가 빠른 상품을 중심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및 자산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7.61 (+4.95)	↑ 금리 (국고채 3년) 1.35% (+0.03)
↓ 코스닥 659.83 (-5.09)	↑ 환율 (USD) 1137.90원 (+5.80)

광주세관 '세일페스타' 구매 물품 이웃 나눔

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은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쇼핑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il Festa)'를 맞아 '월곡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건어물전, 어시장 등을 둘러보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멸치 등 물품을 구매했다.

서 본부세관장은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향수를 느끼게 하는 시장분위기 속에서 국민건강에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어야 하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il Festa)'의 적극 동참과 지진 및 태풍 피해지역인 경주, 울산 등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의 국내여행을 위한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금일 구매한 물품은 복지시설에 전달하여 따뜻한 이웃사랑도 함께 실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창의요리 열전 '전통시장 푸드쇼' 광주 예선전

17일 광주시 남구 임암동 광주 김치타운에서 열린 '맛깔나는 전통시장 푸드쇼' 광주 예선전 참가자들이 조리에 열중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공〉

남구 임암동 광주 김치타운

4팀 다음달 15일 최종전

전통시장 최고의 먹거리를 찾는 '맛깔나는 전통시장 푸드쇼' 광주 예선전이 17일 광주시 남구 임암동 광주 김치타운에서 열렸다.

푸드쇼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통시장의 먹거리를 발굴해 그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시장 방문을 유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전남지방중기청과 광주시, 전남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광주 예선에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10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합해 4팀의 본선 진출자가 가렸다. 이들은 전남 지역 예선을 통과한 4팀과 함께 내달 15일 광주 김치타운 특설무대에서 최종 결선을 치른다. /김대성기자bigkim@

금호타이어 '베트남 문화축제' 후원

금호타이어는 국내 베트남 교민들의 문화 교류를 위한 '제6회 베트남 문화축제'를 후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 해바라기공원에서 열린 축제에는 베트남 교민과 다문화 가정, 지역 주민 1만여명이 참석했고 베트남 정부와 금호타이어 관계자가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금호타이어는 베트남 빈증성에 베트남 최초의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공장(2008년)과 타이어 원재료인 천연고무 가공공장(2007년)을 완공하면서 베트남과 인연을 시작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연간 417만개 규모의 타이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지에서 빈곤가정과 시각장애인 시설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초단기 근로자 5년만에 최대…3분기 134만명

하루 2~3시간 일하거나 일주일에 서너 차례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 측면도 있지만 경기 침체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우려할만한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의 '취업시간별 취업자'를 보면 일주일 근로시간이 1시간~17시간인 취업자는 올해 3분기 기준 134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만1000명 늘었다. 1~17시간 취업자 규모는 154만명을 기록한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았다.

일주일 근무시간이 17시간을 밑도는 일자리는 하루 근무시간이 짧거나 일주일에 3~4일만 근무하는 형태다. 전체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초단기 근로자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초단기 근로자의 증가 속도가 빠른 모양새다. 올 3분기에 전체 취업자가 1.2% 증가하는 동안 초단기 근로자는 더 큰 폭인 7.2% 늘었다.

올해 2분기에도 초단기 근로자는 4.4% 늘어 전체 취업자(1.1%)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늘어나면서 초단기 취업자는 119만9000명에서 1년여 만에 130만명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로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분소유자는 건축물 일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각 세대를 소유한 집주인들을 말한다. 동별 동의율 기준은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주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 현 수준으로 낮아졌다. /연합뉴스